



제주문화가 이슈&현장 공립미술관장 임기 연장은 없다?

예외없는 2년 미술행정 연속성 어디에

개관 11주년 제주도립미술관 2010년 개방직 이래 연임 전문 김창열미술관장도 후임 공모 문화·문화재 업무 부서장도 6개월마다 바뀌며 입길 올라

제주에선 만나라 이야기다. 제주도립미술관 운영 조례가 적용되는 공립미술관은 모두 7곳. 이 중에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김창열미술관 3곳은 개방형 직위로 선발된 전문직 관장이 근무하고 나머지는 명예관장을 뒀다.

2009년 6월 개관한 도립미술관은 2010년부터 개방형 직위로 관장을 앉혔는데 연임 사례가 전무하다. 최근에도 2년 임기가 끝나서 후임 관장을 뽑기 위해 10월 6-13일 공모를 벌였고 서류전형은 통과한 11명을 대상으로 이달 29일 면접시험을 치른다.

2016년 9월 문을 연 김창열미술관은 초대 관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다른 지역 공립미술관장으로 옮겨고 후임 관장은 얼마 전 연장이 2년 임기를 끝냈다. 제주도는 이달 27-11월 2일 신임 관장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 2007년 개관한 제주현대미술관은 2019년 9월 처음 공모로 관장을 선발해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관장 맡으며 제시한 비전 펼칠 기회 있어야" 자적 시비가 이는 일부

개방형 직위와 달리 공립미술관장은 학예 경력 등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경합 끝에 낙점받는 곳이다. 하지만 2년이 되면 예외없이 관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문화계 일각에선 "보은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2년마다 관장이 바뀌는 미술관에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임기 중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적어도 3년 이상은 관장이 제시한 비전을 실현할 기회는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술관장의 재직 수명이 짧은 것도 논란이지만 최근 제주도 문화 관련 부서장 교체가 잦은 점도 입길에 오른다. 제주도 문화정책과장은 2019년 이래 상·하반기 도청 정기인사 때마다 갈렸다. 직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6개월여 만에 공로 연수를 떠났다. 제주도 문화재 업무를 총괄하는 세계유산본부장은 2016년 분부 출범 이후 지난해 8월까지 1년씩 맡았지만 이후엔 공로 연수를 앞둔 공무원 2명이 6개월 남짓씩만 거쳐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정열적 현의 울림 4개월 만의 만남

제주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첼리스트 심준호 협연 나서

제주교향악단은 이번엔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작품 1번',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2번'을 선곡했다. 하이든 협주곡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석을 지낸 첼리스트 심준호가 협연한다. 심준호는 2010년 쥘레스무지컬국제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이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하며 국제무대에 두각을 나타냈다.



첼리스트 심준호. 온라인 중계가 실시된다. 문의 064) 728-2776-7. 전선희기자

이날 연주회에 입장 가능한 인원은 250여 명으로 제주예술단 홈페이지 등으로 예약을 받고 있다. 현장 관람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공적미술품 관리 세미나

제주현대미술관(관장 변종필)과 한국미술평론가협회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 공적미술 관리현황과 문제, 공적미술품 운영관리 방안' 학술세미나가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지난 23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세미나에선 흥경환 평론가, 조운득 조각가, 국립현대미술관 임성진 학예연구관의 발표에 이어 토론이 마련됐다. 세미나 영상은 11월말 미술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49회 제주소목회 회원전

제주소목회(회장 김형석) 마흔아홉 번째 회원전이 지난 23일부터 금요일인 25일까지 3일간 제주현대미술관 2층 기획전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주소목회전은 '추사 김정희를 쓰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추사 제주 유배 18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기획된 전시로 김정희의 시 등을 붓글씨로 옮겼다. 북위 해서를 중심으로 한 임시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현대서예와 전각의 만남

제주전각학연구회(회장 오장순)와 광주 담현서실 이목회가 이달 27-31일 광주 관선재갤러리에서 '현대서예와 전각의 만남 II' 전시를 연다.

두 단체는 2010년과 2011년 교류전을 가졌다. 이번에는 전통적인 문장 표현에서 벗어나 직관에 의한 느림 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현대서예, 작은 공간 안에 우주와 자연, 인간의 삶을 담아낸 전각 작품을 선보이며 장르의 지평을 넓힌다.



황기표 박사와 함께하는 한리일보 인문역사 강의

제주향교 계성사에 제주 명필가 흔적

(9) 제주의 편액(하)

유교 오성 부친 모신 사당 외부 걸린 현판 김용징 제역 정의향교 명륜당 '동자' 누구 의문당은 추사 김정희 글씨 삼읍 향교 대성전 모두 모각



제주향교 계성사 외부 편액(왼쪽)과 내부편액.

제주성 동문, 서문, 남문에는 각기 명칭이 있었다. 제주읍성 동성(東城)의 문은 제중루(濟衆樓)였다. 제중은 대중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1808년 한정은 목사가 중수할 때 연상루(延祥樓)로 개편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상은 '상서로움을 널리 편다'는 의미다. 남성(南城)의 문은 '먼 곳까지 평정하다'는 뜻인 정원루(定遠樓)다. 서성(西城)의 문은 백호루(白虎樓)로 도교에 동서남북의 네 방위를 지키는 수호신인 사신에서 유래했다. 1773년 박성협 목사가 서쪽을 진압하는 요새지를 뜻하는 진서루(鎭西樓)로 개편했다.

제주향교 대성전(大成殿)은 공자의 위패를 모시는 전각이다. 정의향교, 대정향교를 포함 제주 삼읍 대성전 현판은 서울 성균관의 대성전 글씨(석봉 한호)를 모각한 것이다. 명륜당은 유생과 교수 간의 강학이 이루어진 강당이다. 1778년(정조 2) 목사 황희언이 주자의 필체인 서울 성균관의 '명륜당' 편액을 모방해 썼다. 전국적으로 일부만 남아있는 계성사(啓聖祠)는 목민배 목사(1853-1855년 재임)가 장건한 것으로 유교 오성(五聖)의 부친을 모신 사당이다. 현재 계성사 편액은 두 개가 걸려 있다. 외부는 흑색 바탕에 흰색으로 글씨가 써 있으며, 제주 문장기이자 명필가였던 정헌 김용징이 제액했다. 내부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써 있는데, 석봉 이중우의 글씨다.

정의향교의 명륜당 현판 왼쪽에는 '송정팔년동자정상명서(崇禎八年童子鄭尙明書)'라고 쓰여 있다. 송정 8년은 1635년(인조 13)이고

'동자(童子)' 정상명이 썼다는 내역이 있었다. 동자가 과연 어린 아이를 뜻하는지, 조선초 사림파의 스승인 김평필의 '소학동자(小學童子)'의 동자를 인용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대정향교 명륜당 현판은 손조 때의 대정현감 변경봉이 주자(朱子)의 글씨를 집자(集字)해 만들었다. 의문당(疑問堂)은 대정향교 유생들의 강학 공간이다. 의문(疑問)은 '의문이 생기면 질문하라'의 뜻으로 '논어' '계씨' 편에서 유래했다. 의문당 현판은 대정향교의 훈장 강사공이 1846년(헌종 12) 추사 김정희에게 부탁하여 받은 글씨로 오재복이 새겼다고 한다. 현재 의문당 현판은 새로 만든 모각 현판이 걸려 있고, 원본은 제주추사관에 있다.

굴림서원(楡林書院)은 조선 후기 유배인, 목사, 어사로 제주를 방문했던 오현(五賢)을 모신 사당과 지방 유생들이 강학하는 공간이다. 현재의 오현당을 말한다. 향현사(鄕賢祠)는 제주 출신 유학의 선현(고득중, 김진용)을 모신 사당이다. 장수당(藏修堂)은 굴림서원의 강당으로 유생들의 강학 공간이다. 장수는 '책을 읽고 학문에 힘쓰는 뜻으로 예기', '학기' 편에 나온다. 삼천서당(三泉書堂)은 제주향교와 굴림서원 유생을 제외한 제주목 학생들의 강학당이다. 삼천은 '세 곳의 샘'을 의미하는데 서당 터에 산저천, 감액천, 급고천의 세 샘이 솟아나 산저천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제액했다. 김경의 '삼천서당상량문'에 의하면 "처마 사이에 '삼천'이라고 현판을 걸어둔 것은 '과감하게 실천하

면서 묵묵히 덕을 기르는' 몽괘(蒙卦)의 상(象)을 취했다"라고 했다.

제주성 부속 건물인 운주당(運籌堂)의 운주는 '점치는 데 필요한 산가지를 놓린다'는 뜻이다. 유방(劉邦)과 장량(張良)의 고사에서 유래했다. 편액은 이산해가 썼다고 전한다. 1566년 궐을 목사가 동성을 퇴축하고 운주당을 세운 뒤 30여년이 흘러 이경복 목사가 산저천 위에 정자 하나를 지어 옛 구로 결승정(決勝亭)이라 이름붙였다. 제이각(制夷閣)은 제주 성안을 조망하고, 외적 침입의 징후를 두루 살피기 위한 제주성 남동쪽 치성의 누각이다. 공신정(拱辰亭)은 여러 별들이 북극성을 향하는 것처럼 사방의 백성들이 임금에 복종한다는 뜻으로 신찬의 '공신루기'에 의하면 제역은 두보의 시 '중야(中夜)'에서 취했다고 밝혔다. 향사당(鄕社堂)은 은 고을 사람이 모두 모여 활쏘기와 함께 주연을 베푸는 향사례(鄕射禮)를 행하는 향사당(鄕射堂)에서, 지방호적을 보관 관리하는 곳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 향사당(鄕社堂)으로 바뀌었다.

조전진의 객사인 연북정(巖北亭)은 변경의 신하가 왕을 향한 충심을 잃지 않기 위한 뜻을 드러낸 명칭이다. 옛 편액은 쌍벽(雙碧)으로 목사 이육 때에 세웠다. 목사 상운문이 중수해 예전의 규모를 더욱 늘려 편액을 연북정으로 고쳤다.

*강의 영상은 한리일보 유튜브 채널(촬영·편집 박세인 기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캠페인 이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합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숨결 지하수, 제주의 미래!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물살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개발과 비양심적인 오염 배출로 무한한 자원으로 생각했던 지하수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이용 가능한 양의 91%까지 지하수가 개발되었으며 일부지역은 이미 기준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축산분뇨, 화학비료 과다 사용 등 오염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하수 수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우리 모두가 지하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상수도, 농업용수의 96% 이상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지하수는 도민 모두가 소중히 사용하고 미래세대에 전해줘야 할 공공자산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자 지하수를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 하며 오염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일반인 상수도, 농업용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지하수 오염관리 및 물을 절약하는 생활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 늦지 않았습니. 하지만 앞으로는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하수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숨결이며 제주의 미래입니다.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